Daily Auto Check 2020. 6.19(Fri)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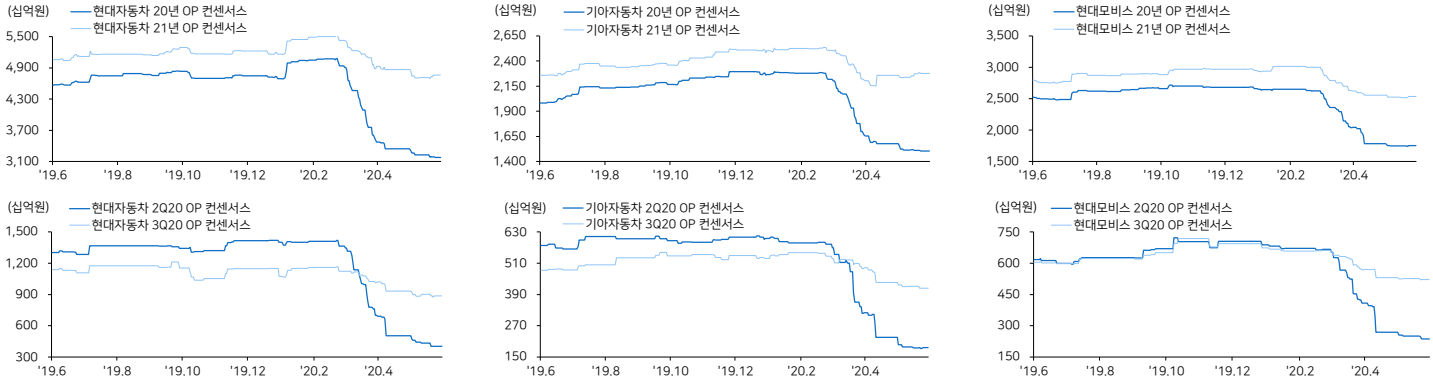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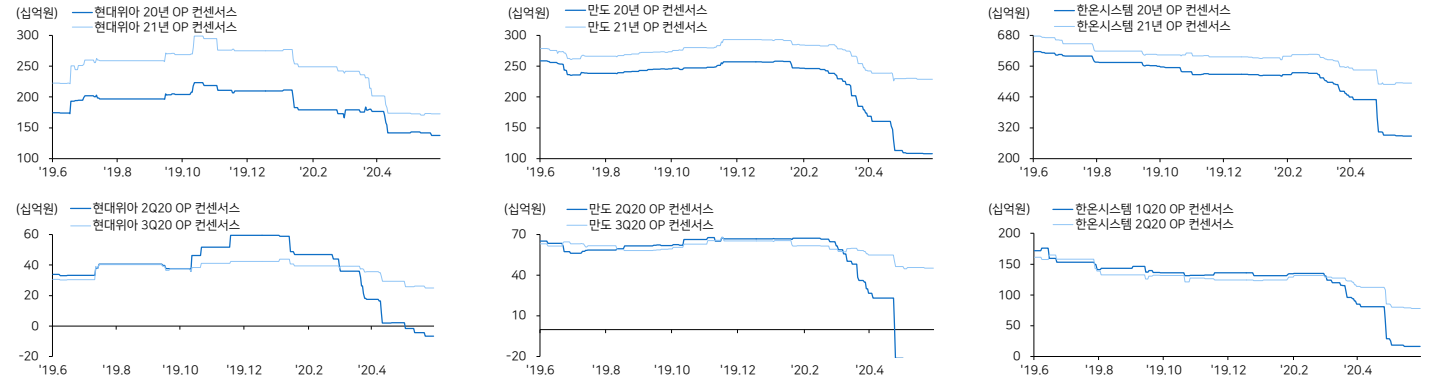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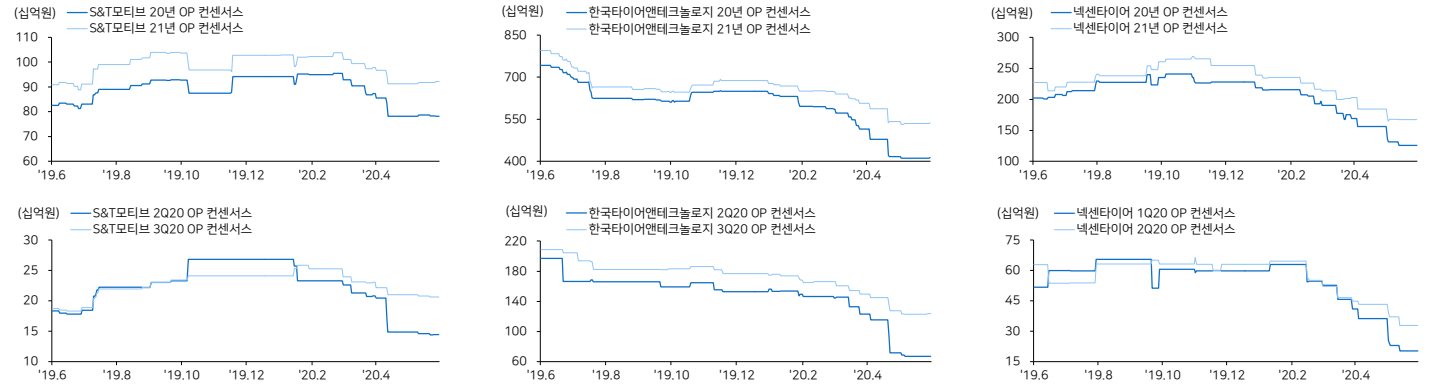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6년 만에 나오는 4세대 기아차 카니발, 렌더링 공개 (연합뉴스)

기아차[000270]의 미니밴 카니발이 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옴. 기아차는 18일 4세대 카니발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 1998년 처음 나온 카니발은 200만대 이상 판매된 기아차 대표 차.
https://bit.ly/37GbJw8

기아차-구글, AI 기반 車 기능설명서 앱 개발 外 (동아닷컴)

기아차는 구글클라우드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차 기능 설명서 애플리케이션(앱) '기아 오너스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힘. 기아차는 이 앱을 올 하반기(7~12월)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
https://bit.ly/3dfkfTO

현대차, 유럽서 코나EV 타이어 '넥센→미쉐린' 바꾸자…"서운한 넥센" (더그루)

현대차가 유럽서 코나 일렉트릭의 신차 타이어(OE)를 넥센타이어에서 미쉐린으로 변경, 주목을 끌고 있음. 특히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주행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설명, 넥센타이어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눈치.
https://bit.ly/2ClR0SM

지리車, '중국판 나스닥' 커창판에 상장 결정 (뉴시스)

중국 대형 자동차사 지리(吉利汽車)가 현지판 나스닥으로 부르는 '커창판(科創板 스타마켓)에 상장. 매체에 따르면 지리 자동차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상하이 증시의 커창판에 상장하는 초안을 비준했다고 발표.
https://bit.ly/2YUmozw

현대車 정의선-LG 구광모, 22일 '배터리 회동' (동아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다음 주 구광모 ㈜LG 대표와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업에 나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미래 배터리 기술을 논의한 지 한 달여 만.
https://bit.ly/30WjvR2

현대모비스, 임직원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 가상엔진사운드 개발 (한국일보)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임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 현대모비스는 2018년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기반으로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https://bit.ly/3hJs9Iy

부품업체 도산에, 모회사 위기에… 국내 車생태계 '휘청' (뉴시스)

코로나19으로 인한 파장이 5개월여간 지속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휘청이고 있음. 업계에서는 수년째 이어진 자동차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 등으로 부품업계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옴.
https://bit.ly/2Bo7CsI

중국 창성차, 10억달러 투자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GM공장 개조…3천명 고용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최대 SUV 제조업체 창성자동차(Great Wall)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와 10억달러를 투입해 전 GM공장을 개조해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한다는 MOU를 체결.
https://bit.ly/2BoSDy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